

다문화 수용성의 원인 분석



송 미영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mysong0215@daum.net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의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 수용성을 보편적인 가치로 정의하여, 성별·이념·성향, 외국문화의 접촉경험, 이주민에 대한 호감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토하였다. 기존연구에서 보편주의적 가치가 소수집단에 개방적인 태도로 나타남이 증명되었으므로 보편적인 가치를 다문화 수용성의 대체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질문은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어려운 외국의 사회적 약자를 돋는다’는 의견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이다. 연구방법은 양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였으며, 비확률적 표본추출방법인 의도적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분석방법은 다중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외국방문 경험유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호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호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별·이념성향, 외국문화의 접촉경험(근처에 외국인 거주유무, 주변에 외

국인 이웃이나 친구유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호감은 다문화 수용성에 통계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은 다민족·다문화사회라는 평가에 대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이주민으로 결혼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가족을 형성한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근로자, 북한을 벗어나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주민들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있다. 원주민인 한국국민들은 사회의 소수집단인 이주민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통하여 다문화 수용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2008년 한국, 중국, 일본의 청소년들을 각각 2,000명씩 총 6,000명을 대상으로 가치관을 조사하여 국제 비교한 결과가 있다. 구체적인 질문문항을 살펴보면, ‘다문화사회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중국(94.7%), 일본(80.4%), 한국(‘07년 68.4%, ’08년 77.9%)로 파악되었다. ‘다문화 청소년을 친구로 받아드릴 수 있다’는 중국(98.0%), 일본(90.2%), 한국(‘07년 78.6%, ’08년 86.9%)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도 동일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중국(97.9%), 일본(90.2%), 한국(‘07년 81.2%, ’08년 87.6%)로 분석되었다. 한국청소년은 비록 ’07년도와 비교하여 다문화 수용성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3개국 중에서 가장 낮았다(한국청소년연구원, 2009).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한국청소년들이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이 어느 수준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편적인 가치는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성이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에 대한 질적 연구(최훈석 외, 2008)에서 한국인들의 다문화에 대한 관용을 증명하고 있다. 반면에 이념성향이 진보 또는 보수이든 상관없이, 한국 현실에서는 이주민에 대하여 정치적 인정의 평등적 관계 대신에 보호의 대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온정주의적(Paternalist)¹⁾ 태도로 이민자 정책이 결정된다(심보선, 2007)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김혜숙(2007)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소수집단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가 다문화 수용성을 높여줌을 검토하였다. 즉, 보편주의 가치는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새터민 및 북한사람에 대한 호감

1) 소수 이민자 집단의 자결조직과 인정의 정치를 정책 영역에서 배제한 채 진행되는 한국인 중심의 지원단체들과 정부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 이 속에서 작동하는 ‘관용’의 패러다임. 그리고 그 결과로 복지, 상담, 교육, 문화 프로그램 중심으로 실행되는 정책. 그것이 현재의 정부주도의 온정주의적 이민자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심보선 2007, 68).



대표적인 이주민으로 결혼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가족을 형성한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근로자, 북한을 벗어나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들 수 있다.

과 신뢰를 높여주며, 차별금지법, 양성평등 고용제, 장애인고용할당제와 같은 제도에 찬성하는 태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김리카

(Kimlicka, 2003)는 개별수준의 다문화주의는 시민이 지녀야 할 지식, 신념, 미덕, 성향, 다문화 스킬(Multi-cultural Skill)을 포함되어야 하며, 다문화 시티즌십(Intercultural Citizenship)은 다문화 국가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양성을 지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리카가 말하는 다양성에 개방적인 태도 및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는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의 한 요소로 볼 수 있다(황정미 외, 2007). 이같이 보편적인 가치는 다문화 수용성을 설명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을 보편적인 가치로 측정하였다.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양애경 외, 2007; 최훈석 외, 2008),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김희자, 2008; 양계민, 2009a; 양계민, 2009b), 한국인의 국민정체감과 다문화 수용성(윤인진·송영호, 2009), 한국인들의 가치와 다문화 수용성(김혜숙, 2007), 다문화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수용성(권승, 2009) 등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한국에서 대표적인 이주민이라 할 수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검토하기보다는 각각 혹은 한국과 이주민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민족정체성을 중심으로 다문화 사회로 변화에 대한 태도 혹은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를 다문화 수용성으로 설정한 경향이 있다. 더불어 다문화 수용성의 개념정의가 2개 이상이므로 분석에서 각각의 종속변수를 분석하거나 독립변수 설정이 다소 복잡하여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의 원인을 대표적인 이주민인 여성결혼이민자·외국인 근로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호감을 포함시켰고, 추가로 성별·이념성향·외국문화의 접촉경험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연구에서 파악하고 싶은 다문화 수용성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계층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의 보편적인 가치로 정의하였다. 현재의 젊은 세대인 대학생의 경우,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외국방문기회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다른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외국문화를 쉽게 접촉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이 다른 민족 혹은 문화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며, 이러한 수용성 혹은 개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다른

계층의 다문화 의식을 살펴보는 것보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문화교육 등과 같은 사회적인 대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연구의 고찰

다문화주의의 개념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동화주의²⁾와 차별배제 모형³⁾이 다민족·다문화 사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에서 등장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와 인종으로 구성된 국가의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서 부각되었다(지종화 외, 2009). 다문화주의의 출현에 대하여 단문화주의와 용광로 이론(Melting Pot Theory)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의견도 있다(김용신, 2008). 다문화주의 개념은 현재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념규정을 하기 어렵지만 학자들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개념을 검토한다. 다문화주의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동일한 정치체(Polity)에 조화롭게 참여하며, 각각의 문화적 고유성을 보존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이념이다. 따라서 다문화주의는 국가가 지배문화의 관습과 가치들을 강제로 교육하는 것을 반대한다(Zaw, 1996, 123; 김용신, 2008, 42). 또한 다문화주의는 민족국가의 틀 속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던 다양성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다양성을 극복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다. 역동적인 사회통합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국적만을 기준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거주자로서의 권리,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구조적·제도적 차별을 철폐하고,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호관계를 형성하면서 사회 각방면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이 다(황정미 외, 2007). 그러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라는 개념은 소수자 집단의 내적문제와 집단 간 문제를 설명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조화성(2009)은 킴리카(2003)가 언급한 인터컬처리즘(Interculturalism)의 개념으로 다문화주의를 설명하였다.

2) 동화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비교적 쉽게 이민을 받아들이지만, 출신국의 고유 문화를 탈피해 문화적으로 적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모형에서는 국가정책은 문화적 적응과 경제성의 전이가 용이하도록 지원하지만, 소수 문화 고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지종화 외, 2009). 여성 결혼이민자 정책은 순혈주의를 중심으로 한 동화모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3) 이 정책모형은 인종적 소수자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며, 인종청소를 통해 인종적 소수자의 배제를 꾀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아주 노동자를 단기간 취업시킨 후 국내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고 계약이 종료되면 다시 본국으로 귀국시키는 교체순환정책이 이에 해당된다(지종화 외, 2009).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은 이모형에 따라 운용되었다.

인터컬처리즘은 단순한 공존이 아니라 이주민과 원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것이고, 상대방 문화와 생산적인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사회통합과 새로운 정체감이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함께 거주하지 않지만 타민족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간접적 접촉을 하며 거대문화를 배우는 글로벌 다문화주의 또는 코스모폴리탄 다문화주의(Cosmopolitan Interculturalism)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며 이웃한 지역의 문화를 수용하는 로컬 다문화주의(Local Interculturalism)로 구분된다. 김리카는 글로벌 다문화주의보다는 로컬 다문화주의를 존중하는 것이 다문화 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황정미 외, 2007). 한편, 다문화주의는 다문화 공존의 이상을 추구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도전은 영미학계에서 대두되고 있는데, 개인성, 사회적 갈등, 분배의 문제, 소수자 중심의 사회 등의 문제들이다. 첫째, 개인을 하나의 문화적 집단에 귀속시키며, 한 가지의 정체성을 강제로 부과하고, 그 집단 안에서 개인의 정체성 변화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둘째, 사회적 연대를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셋째, 분배의 문제에 무관심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시각이다. 넷째, 소수의 다문화 이주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보호는 다수를 점하는 주류문화의 구성원에 대한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다문화주의는 민주주의와 번영을 이루면서 소수집단의 권리가 동등하게 존중받기도 한다. 반면에 소수집단과 다수집단간의 교류와 상호작용의 수준은 더욱 저하되는 결과로도 나타난다(지종화 외, 2009).

또한 다문화주의는 갈등해소이론의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문화주의가 기능할 때 정치성을 띠게 된다. 기본적으로 국민국가가 새로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이론이지만 다른 방식에 따라 또 다른 국민 만들기(Nation-building)의 가능성성이 상존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주의는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면과 보수적인 면의 이중성을 띠고 있다. 정치철학자 김리카의 지적처럼 보수주의에 의해 주장될 경우, 기존 엘리트들이 급격한 사회변화를 제한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옹호하며, 자신들의 기존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주장되기도 한다. 반면에 개혁적인 진보주의자들에 의해 주장될 경우, 자유주의적 가치에 기반해 소수자들의 사회적 권리를 배제시켜왔던 기존질서와 관습에 대항하기 위해 호소될 것이다(김창근, 2009).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Multiculturalization)와 관련하여 다문화(Multiculture) 사회에 새로운 시민의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합한 시민성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문화의 특성상 자기의 ‘문화렌즈’(Cultural Lens)를 통해서 다른 문화를 보려하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즉, 특정 문화 렌즈로 사회를 보는 것

이 시민들의 다른 문화에 대한 무능력(Inability)으로 발달하면 국가사회의 정치통합과 사회질서에 대한 합의와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의 시민은 다문화 능력((Multicultural Competence))을 필요로 한다. 다문화 능력은 다문화 사회의 시민적 소양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다문화 시민성(Multicultural Citizenship)을 표현할 수 있다. 다문화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소수문화집단의 실질적 동등성 확보를 위한 지식구성, 편견 해소방법 등이 적용되어야 하고, 주류사회 문화집단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들이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지식, 가치, 태도, 기능을 발달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김용신, 2008). 김창근(2009)은 다문화 공존을 위한 시민성의 구성요소로 다원적 문화의식, 자유주의적 공화주의의식, 열린민족의식, 세계시민의식 등을 제시하였으며, 4가지 의식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다문화 시티즌십(Interculture Citizenship)과 관련하여 조화성(2009)은 전체적으로 이민자를 시민으로 수용하는가를 ‘시티즌십의 탈민족화’로 명명하였고, 시티즌십의 탈민족화가 높은 경우, 국민정체성에서 범·제도적 요소(Civic Nation)가 혈통·문화적 요소(Ethnic Nation)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이민자들간의 인종, 출신민족, 국가를 기준으로 차별적 인식과 수용이 존재하는가를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선호’로 정의하였고,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선호가 적은 경우, 문화집축활동(지원 및 교류)에 적극적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문화 시티즌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티즌십의 탈민족화와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선호의식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개념을 기초로 다문화 시티즌십의 유형을 차별배제형, 동화형, 단순공존형, 상호연대통합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본 연구의 다문화주의의 개념은 황정미 외(2007)의 정의를 참고하였다. 즉, 국적만을 기준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거주자로서의 권리,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구조적·제도적 차별을 철폐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호관계를 형성하면서 사회 각 방면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등 역동적인 사회통합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들로 정의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문화 이주자는 김성천 외(2009)에서 다룬 이주민의 범주를 참고하여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였다.

보편적 가치와 다문화 수용성과의 관계

다문화 수용성은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민족·인종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

다(황정미 외, 2007). 하지만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는 여러 가지 차원의 사회변동을 내포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균질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지지하는 가치관의 내용이 매우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일 수 있다(윤인진·송영호, 2009). 기존연구를 검토한 결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측정은 주로 사회적 거리감(김희자, 2008; 황정미 외, 2007), 종족배제주의(양계민, 2009b),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양계민, 2009b; 윤인진·송영호, 2009), 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태도(윤인진·송영호, 2009), 문화에 대한 인식 및 이주민과의 접촉경험(최훈석 외, 2008), 이주민에 대한 개방성 및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인식(최훈석 외, 2008)으로 나타났다.

김혜숙(2007)은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는 편견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 사회의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는 가치표현이라든지 혹은 자아방어기능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보편주의 가치, 권력 및 자기지도·성취 가치)가 장애인, 탈북자,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 북한 사람, 호남사람 및 영남사람에 대한 태도(호감, 신뢰도 및 자녀결혼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연구자는 궁극적으로 현재 우리사회에 주요 사회갈등에 개입되어 있는 여러 집단 범주들에 대한 편견적 태도가 가치에 의해 일관된 방식으로 영향 받는지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사람들이 가지는 보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가치들에 대해 Schwartz(1992)의 척도를 소개하였다. 이 척도는 10개의 차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 보편주의 가치가 있으며, 일반적 타인들에 대한 배려, 사회정의, 환경, 평등에의 관심으로 설명되어 있다. 또한 Schwartz(1992)는 10개의 차원들을 상위 두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차원은 자기·고양(자극, 쾌락, 성취, 권리, 안전) 대 자기·초월(자기지도, 보편주의, 자비, 전통/동조)이다. 두 번째 차원은 변화에 개방적인(보편주의, 자기지도, 자극, 쾌락, 성취) 대 보수적(자비, 전통/동조, 안전, 권리)이다. 이 가치 척도는 20개국의 사람들에게 조사해본 결과, 문화에 상관없이 비슷한 차원의 가치들이 얻어졌다고 보고되었다. 연구자는 Schwartz(1992)의 가치 척도를 단축하여 만든 메이오와 올슨(Maio and Olson, 1995)의 단축판을 변안하고 요인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보편주의 가치 측정 문항은 6문항이며, 평등, 사회정의, 마음이 넓음, 환경보호, 정직 및 도움이 됨이다.

보편주의 가치는 초월가치로서 평등과 사회정의에의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 약자집단에 보다 평등적 태도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김혜숙, 2002)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가치들(즉, Schwartz 척도의 가치들)이 북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나 이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평등이나 사회정의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편적인 가치는 북한 사람과의 낮은 사회적 거리감, 대북지원 정책이나 민간교류 정책에 대한 찬성태도를 예측해 주었다.

가설검정결과, 보편주의 가치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긍정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이나 양성평등고용법과 같은 소수집단을 위한 구체적 정책도 입에 대한 긍정적 태도도 상당히 잘 예측해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가치교육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즉, 사람들이 소수집단에 대한 보다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소수집단을 위한 정책을 수용하여 사회통합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편주의적 가치를 보다 고취시켜야 함을 제언하였다. 더불어 현재,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와 비교할 때, 사회정의나 평등을 신봉하는 경향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자유나 개인의 성취 등을 지향하는 경향성이 높아지므로 보편주의적 정신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김혜숙, 2007).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사용된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측정을 사용하는 대신에, Schwartz(1992)의 두 차원에 대한 구분 중 변화에 개방적인(보편주의, 자기지도, 자극, 쾌락, 성취) 대 보수적(자비, 전통/동조, 안전, 권력)을 참고하여 보편적인 가치를 다문화 수용성의 대체개념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결과(김혜숙, 2007), 보편주의적 가치가 소수집단에 개방적인 태도로 나타남이 증명되었으므로 종속변수로 보편적인 가치인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어려운 외국의 사회적 약자를 돋는다’로 설정하였다.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수용성을 설명하는 변인을 중심으로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본다. 다문화 수용성을 크게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관한 태도와 소수인종집단에 대한 태도로 구분하여 분석한 양적인 연구결과(윤인진 · 송영호, 2009)를 살펴본다. 다문화사회로 변화에 대한 태도인 다문화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이념성향, 국내외국인 교류, 종속정체성이며, 자민족 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념성향, 이주노동자로부터 피해경험, 종속정체성, 시민정체성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보수적 성향보다 진보적 성향이 강할수록(황정미 외, 2007),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교류가 활발할수록, 종속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수록 한국인들의 다문화 지향성이 높았다. 또한 보수적 성향이

강할수록, 이주노동자로부터 피해경험과 그 가능성이 많을수록, 종속정체성과 시민정체성을 강조할수록 자민족지향성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소수인종집단에 대한 태도인 정부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연령, 외국방문경험, 국내거주 외국인과의 교류, 본인 이주노동자 피해경험 및 그 가능성, 종족정체성이며, 이중국적허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이념성향, 외국방문경험, 종족정체성이며, 2세대 시민권부여는 이념성향, 종족정체성, 시민정체성으로 파악되었다. 즉, 여성보다 남성, 연령이 낮을수록, 외국방문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교류가 활발할수록, 본인의 이주노동자 피해경험이 적을수록, 종속정체성을 중요시 여기지 않을수록 정부의 적극적 조치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외국방문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종족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수록 이중국적 허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2세대 시민권부여는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종속정체성과 시민정체성을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 수용성을 4가지 차원에서 각각 살펴보았으며,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성별, 연령, 이념성향이며, 외국인 접촉 및 위협인지는 외국방문경험, 국내 외국인 교류, 본인 이주노동자 피해이며, 국민정체성은 종족정체성과 시민정체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수용성을 살펴본 질적인 연구결과(최훈석외, 2008)를 살펴본다. 이 연구에서는 상대방 문화에 대한 수용성은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인식수준과 공적 혹은 사적 대면경험의 성질에 의해 영향 받는다(Gudykunst, 1998)는 가정에 따라 지역사회 수용성을 크게 2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차원은 지역주민들의 여성결혼이민자 문화에 대한 인식 및 여성결혼이민자와의 접촉경험이며, 두 번째 차원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개방성 및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이다.

문화에 대한 인식은 일상적인 생활습관 및 문화의 차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여성결혼이민자들 간 문화간 접촉경험은 집단 간 접촉(Intergroup Contact)의 틀이 소개되었다. 집단 간 접촉이 집단 간 편견을 줄이고 수용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어어야 한다(Stephen, 1985). 제시된 조건들을 통해서 본 연구의 다문화 수용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양적인 접촉빈도 뿐만 아니라 질적인 친밀관계를 수반하는 심층적인 접촉수준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이 파악되었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

에 대한 개방성은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태도이다.

또한 개방성의 다른 단



보수적 성향이 강할수록, 이주노동자로부터 피해경험과 그 가능성이 많을수록, 종속정체성과 시민정체성을 강조할수록 자민족지향성 높게 나타났다.

면으로 친교관계 수립, 관계지속의도, 개인적 자원의 제공 등과 같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직접적으로 지향된 행동의도 뿐만 아니라 외국인과의 결혼수용, 자녀들 간 교류허용 등과 같은 간접적 차원의 행동의도도 함께 탐색되었다. 더불어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인식도 면접문항에 포함되었다. 심층면접결과, 조사에 참여한 지역주민들 가운데 다수는 표면적으로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호의적인 태도는 한국 사람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평등주의’, 한국에서 필요해서 왔으므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책임론’,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연민’과 ‘동정’, 한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실용주의적 관점’ 등이 근간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은 한국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동화를 전제로 공생관계를 인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들과 양방향적인 문화적 상호작용이 부족하며, 문화적 다원화 과정으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민족 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다문화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한 양적인 연구(양계민, 2009b)가 있다. 연구자는 다문화 수용성을 종족배제주의와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로 설정하였다. 종족배제주의는 이주로 인한 위협, 이주자 시민권 찬성, 다문화 사회의 긍정성이다.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는 한국사회의 소수집단 중 문화적, 인종적 배경준거에 의해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이주가정 자녀, 새터민, 중국조선족을 대상으로 각 집단에 대한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의 태도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다문화 수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민족 정체성 중 문화민족정체성이고,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일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로 파악되었다. 또한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는 문화민족정체감이 높을수록 소수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점수가 높았고, 자민족중심주의가 높아질수록 긍정적 태도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기존연구결과의 검토를 기초로 다문화 수용성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성별·이념성향, 외국문화의 접촉경험, 이주민에 대한 호감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

연구질문 및 연구가설

연구질문: 다문화 수용성의 요인은 무엇인가?

가설1. 성별 · 이념성향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 성별에 따라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어려운 외국의 사회적 약자를 돋는다’는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 자신의 이념성향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따라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어려운 외국의 사회적 약자를 돋는다’는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 국민의 이념성향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따라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어려운 외국의 사회적 약자를 돋는다’는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가설2. 외국문화의 접촉경험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 외국에 방문한 경험에 따라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어려운 외국의 사회적 약자를 돋는다’는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 근처에 외국인이 거주하면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어려운 외국의 사회적 약자를 돋는다’는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친구나 아는 외국인이 있으면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어려운 외국의 사회적 약자를 돋는다’는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가설3. 이주민에 대한 호감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호감이 높으면,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어려운 외국의 사회적 약자를 돋는다’는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호감이 높으면,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어려운 외국의 사회적 약자를 돋는다’는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 북한이탈주민(새터민)에 대한 호감이 높으면,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어려운 외국의 사회적 약자를 돋는다’는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주요변수 및 측정도구

1) 종속변수

다문화 수용성이며, 이에 대한 대체개념은 보편적 가치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질문은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어려운 외국의 사회적 약자를 돋는다’는 의견이며, 매우 중요하다(1점), 상당히 중요하다(2점), 약간 중요하다(3점), 보통이다(4점), 약간 중요하지 않다(5점), 상당히 중요하지 않다(6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7점)의 평정척도(Rating Scale)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질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의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홍릉한 시민이 되기 위한 자질로 사용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1점, ‘상당히 중요하지 않다’는 2점, ‘약간 중요하지 않다’는 3점, ‘보통이다’는 4점, ‘약간 중요하다’는 5점, ‘상당히 중요하다’는 6점, ‘매우 중요하다’는 7점으로 무게를 주었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어려운 외국의 사회적 약자(빈곤국 아동지원 등)를 돋는다’를 중요하게 생각함을 의미한다.

2) 독립변수

(1) 성별·이념성향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명목변수로 질문하였다. 분석을 위해 ‘여성’을 기준으로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전환하였다. 이념성향은 국민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본인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구분되며, 기존연구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의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각 질문의 선택범주는 매우 보수적이다(1점), 다소 보수적이다(2점), 반반이다/진보도 보수도 아니다(3점), 다소 진보적인 편이다(4점), 매우 진보적이다(5점)인 평정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조사항목에 대한 회답항목을 그대로 점수로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매우 보수적이다와 다소 보수적인 편이다를 ‘보수’로, 반반이다/진보도 보수도 아니다를 ‘중도’로, 다소 진보적인 편이다와 매우 진보적이다를 ‘진보’로 리코딩(Recording)하였다. 이념성향은 중도를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만들었다.

(2) 외국문화의 접촉경험

외국문화의 접촉경험은 양적특성과 질적 특성을 가진 변수로 측정하였다. 다문화에 대한 접촉빈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외국방문경험 유무와 집 근처에 외국인 거주유무를 질문하였다. 또한 다문화에 대한 친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에 외국인 친구가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조사문항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에서 추출하였다. 각각의 변수는 분석을 위하여 외국방문경험유무는 ‘없다’를 기준으로, 근처 외국인 거주유무는 ‘살지 않는다’를 기준으로 주변에 외국인 친구 유무는 ‘없다’를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전환하였다.

(3) 이주민에 대한 호감

이주민은 외국인 근로자, 여성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을 범위로 설정하였다. 이주민에 호감은 각 대상에 대하여 어떤 인상을 갖고 있는지 매우 그렇다(1점), 대체로 그렇다(2점), 별로 그렇지 않다(3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응답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드 척도(Likert Scale)로 평가(Evaluation)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호감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술문을 제시한다. 즉, ‘외국인 근로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외국인 근로자는 믿고 일을 맡길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가 옆자리에 앉는 것은 피하고 싶다’, ‘외국인 근로자가 길을 물어오면 되도록 모른 척 하고 싶다’이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각 진술문을 소개한다. 즉, ‘여성결혼이민자는 못 배운 사람이라 아는 것이 적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쉽게 이혼한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이웃에 사는 것은 피하고 싶다’, ‘여성결혼이민자가 말을 걸어오면 불편할 것 같다’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새터민)과 관련된 문항들을 제시한다. 즉,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은 책임감이 없다’, ‘북한이탈주민(새터민)는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이 내 옆자리에 앉는 것은 피하고 싶다’,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이 길을 물어오면 되도록 모른 척 하고 싶다’이다. 이같은 조사문항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의 연구를 참고하여 용어를 일부 수정한 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호감은 신뢰도(Cronbach's Alpha)가 .749(4문항)로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결혼이민자의 호감은 Cronbach's Alpha가 .802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북한이탈주민(새터민)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848로 높게 나타났다. 신뢰도가 .6이상이면 하나의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변수계산(Compute)을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 여성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은 각각 하나의 변수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4점 서열식 응답범주는 ‘그렇다(비호감)’를 기준으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조사대상은 비확률적 표본추출방법인 의도적 표본추출방법(Judgmenta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의도적 표본추출방법의 장점은 비용이 적게 들고, 할당표집이나 임의표집보다 조사목적을 충족시키는 요소를 정밀하게 고려할 수 있다. 반면에 표본의 대표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모집단에 대한 상당한 사전지식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충남의 00대학교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집합조사법(Survey to a Group of

Respondents Gathered at the Same Place)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기간은 2009년 12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질문지는 110부를 배포하여 100부를 회수하였다. 1부를 제외하고 9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두 가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다문화 관련 경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하였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Cronbach's Alpha)을 사용하였다. 둘째, 독립변수인 성별·이념성향, 외국문화의 접촉경험(외국방문경험, 근처에 외국인 거주, 주변에 외국인 이웃이나 친구), 이주민(외국인 근로자, 여성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호감이 종속변수인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은 50.5%, 여성은 49.5%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19세가 29.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20세, 22세~29세, 21세 순으로 낮게 파악되었다. 평균연령은 20살이다. 본인의 현재 사회적 계층을 1점(최하층)부터 10점(최상층)까지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조사대상자들의 43.1%가 상층(6점~10점)에 속한다고 응답하였다. 중층(5점)은 29.5%, 하층(1점~4점)은 27.4%로 분석되었다. 출신지역은 충남이 38.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인근지역인 대전이 15.3%를 차지하였다. 조사한 대학교의 위치가 충남지역이기 때문에으로 추측된다.

자신의 이념적 성향에 대하여 진보적인지 혹은 보수적인지 주관적으로 답변하는 질문을 매우 보수적이다 1점부터 매우 진보적이다 5점으로 구분하여 파악한 결과, 응답자의 46.2%가 보수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반면에 24.2%만이 본인이 진보적인 성향이라고 하였다. 또한 한국 사람들의 이념적 성향에 대한 질문에 79.1%가 진보적이라고 주관적인 평가를 하였고, 5.5%만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였다. 본 조사가 1개 대학교 대상으로, 표본이 99명을 조사하여 외적타당도가 부족한 연구의 한 계점이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 사회의 가장 진보적인 계층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 본인은 보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 분		빈도 (비율)	구 분		빈도 (비율)
성 별	남 성	49 (50.5)	출신	서울	3 (3.1)
	여 성	48 (49.5)		대구	1 (1.0)
	합 계	97 (100.0)		인천	3 (3.1)
(평균=20살, 표준편차 = 2살)	18 세	11 (11.3)	지역	광주	5 (5.1)
	19 세	29 (29.9)		대전	15 (15.3)
	20 세	23 (23.7)		울산	3 (3.1)
	21 세	13 (13.4)		경기	5 (5.1)
	22세 ~ 29세	21 (21.5)		강원	1 (1.0)
	합 계	97 (100.0)		충북	4 (4.1)
(평균=6.43, 표준편차 =1.79)	하층 (1 ~ 4점)	26 (27.4)		충남	38 (38.8)
	중 층 (5점)	28 (29.5)		전북	4 (4.1)
	상층 (6점 ~ 10점)	41 (43.1)		전남	5 (5.1)
	합 계	95 (100.0)		경북	5 (5.1)
				경남	4 (4.1)
				제주	2 (2.0)
				합 계	98 (100.0)

계속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 分		빈 도	비 율
자신의 이념성향에 대한 주관적 평가	보 수 적	42	46.2
	중 도 적	27	29.7
	진 보 적	22	24.2
	합 계	91	100.0
국민의 이념성향에 대한 주관적 평가	보 수 적	72	79.1
	중 도 적	14	15.4
	진 보 적	5	5.5
	합 계	91	100.0
종 교	천주교	5	5.3
	기독교	30	31.9
	불 교	7	7.4
	기 타	2	2.1
	무 교	50	53.2
	합 계	94	100.0

수적이고, 국민도 보수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종교는 무교가 53.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기독교 31.2%, 불교 7.4%, 천주교 5.3%로 파악되었다.

2) 외국문화의 접촉경험

외국을 방문한 경험여부에 대한 질문에, 60.6%가 ‘없다’, 39.4%가 ‘있다’에 응답

하여 외국에 전혀 방문하지 않은 대학생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집 근처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살고 있느냐는 질문에 61.3%가 살고 있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집 근처에 살고 있다고 응답한 38.7%에게 어느 나라 국적이 가장 많은지 파악한 결과, 중국인이 6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동남아인(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이 25.3%, 미국인이 10.5% 순으로 낮았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친구나 아는 외국인이 있는지는 66.7%가 ‘없다’에, 33.3%가 ‘있다’고 하였다. 양적으로 외국문화의 접촉빈도를 파악하고자 외국을 방문한 경험여부를 질문했는데, ‘없다’의 비율이 60.6%로 높았다. 또한 질적으로 외국인과의 친밀관계를 파악하고자 외국인 친구 및 아는 외국인 여부도 ‘없다’가 66.7%로 높게 나타났다.

〈표 2〉 외국문화의 접촉빈도 및 친밀관계

(단위 :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외국 방문경험	있 다	37
	없 다	57
	합 계	94
집 근처 외국인	살고 있다	36
	살고 있지 않다	57
	합 계	93
집 근처 외국인 중 가장 많은 국적	중국인	23
	조선족	1
	동남아인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10
	미국인	4
	합 계	38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친구 또는 지인	있 다	31
	없 다	62
	합 계	93

〈표 3〉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친구의 국적 (다중응답)

(단위 : 명, %)

구 분	빈 도	응답수의 비율	사례수의 비율
중 국 인	19	35.8	63.3
조 선 족	6	11.3	20.0
동남아인	6	11.3	20.0
일 본 인	5	9.4	16.7
미 국 인	5	9.4	16.7
몽 골 인	4	7.5	13.3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안	3	5.7	10.0
유 런 인	4	7.5	13.3
기 타	1	1.9	3.3
전 체	53	100.0	176.7

*유효 사례수: 30

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조사대상자들의 외국문화의 접촉경험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친구나 아는 외국인이 있다고 응답한 30명에게 외국인의 국적을 다중응답방법으로 질문한 결과, 중국인이 6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조선족·동남아인(20.0%), 일본인·미국인(16.7%)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3) 이주민에 대한 호감

외국인 근로자, 여성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에 대하여 어떠한 인상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81.9%가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반면에 12%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을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하여 91.1%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 1%만이 비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는 93.9%가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고, 6%만이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이주민에 대한 호감의 정도를 평균을 통하여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대체로 대학생들의 이주민들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다.

한국에 증가하는 이주민 중 외국인 근로자, 여성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앞으로 늘어나야 하는지 혹은 줄어야 한다는 의견을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외국인 근로자 중 생산기능직에 대하여 43.4%는 현재수준을 유지, 33.4%

〈표 4〉 이주민에 대한 호감

(단위 :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평균=2.95, 표준편차=.512)	1. 매우 그렇다	0	0
	2. 대체로 그렇다	12	12.0
	3. 대체로 그렇지 않다	65	65.7
	4. 전혀 그렇지 않다	22	22.2
	합 계	99	100.0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평균=3.07, 표준편차=.581)	1. 매우 그렇다	1	1.0
	2. 대체로 그렇다	8	8.1
	3. 별로 그렇지 않다	63	63.7
	4. 전혀 그렇지 않다	27	27.4
	합 계	99	100.0
북한이탈주민 (새터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평균=3.21, 표준편차=.559)	1. 매우 그렇다	1	1.0
	2. 대체로 그렇다	5	5.0
	3. 별로 그렇지 않다	57	57.5
	4. 전혀 그렇지 않다	36	36.4
	합 계	99	100.0

〈표 5〉 이주민의 증감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범 주	외국인 근로자		여성결혼 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생산기능직	전문기술직		
1. 많이 늘어야 한다	7 (7.1)	9 (9.1)	6 (6.1)	19 (19.2)
2. 약간 늘어야 한다	26 (26.3)	37 (37.4)	13 (13.1)	28 (28.3)
3. 현재 수준 유지	43 (43.4)	29 (29.3)	48 (48.5)	40 (40.4)
4. 약간 줄어야 한다	19 (19.2)	20 (20.2)	24 (24.2)	9 (9.1)
5. 많이 줄어야 한다	4 (4.0)	4 (4.0)	8 (8.1)	3 (3.0)
전 체	99 (100.0)	99 (100.0)	99 (100.0)	99 (100.0)
평균 (표준편차)	2.87 (.944)	2.73 (1.018)	3.15 (.962)	2.48 (1.004)

는 현재보다 늘어야 한다, 23.2%는 현재보다 줄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전문기술직에 대하여 46.5%는 많이 늘어야 하며, 29.3%는 현재수준을 유지하며, 24.2%는 현재보다 줄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생산기능직의 증가보다 전문기술직의 증가를 더 높은 비율이다. 줄어야 한다는 의견은 생산기능직보다 전문기술직의 비율이 단지 1%정도 높았다. 요약하면, 생산기능직은 현재수준 유지에, 전문기술직은 현재보다 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하여 48.5%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32.3%가 현재보다 줄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반면에 19.2%만이 현재보다 증가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47.5%가 현재보다 늘어나야 한다에, 40.4%는 현재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12.1%만이 현재보다 줄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여성결혼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증감은 반대의 비율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 역시, 조사대상자들의 북한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긍정적인 인식 때문일 것으로 추측되며, 인식전환에 교육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다문화 수용성

보편적인 가치인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어려운 외국의 사회적 약자(빈곤한 국

〈표 6〉 다문화 수용성 (보편주의 가치)

(단위 :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1.1	
2. 상당히 중요하지 않다	1	1.1	
3. 약간 중요하지 않다	6	6.3	
4. 보통이다	17	17.9	평균=5.37
5. 약간 중요하다	22	23.2	표준편차=1.345
6. 상당히 중요하다	25	26.3	
7. 매우 중요하다	23	24.2	
전 체	95	100.0	

가의 아동을 지원하는 일)를 돋는다'를 다문화 수용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에, 조사대상자들은 73.7%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8.5%만이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보편적인 가치가 높은 경우, 소수집단에 대한 개방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김혜숙, 2007)에 근거하여 조사대상 대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편으로 해석된다.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들 간의 상관정도인 공차한계와 VIF값으로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가 .3보다 크고 VIF는 3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들이 상호 독립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호감의 공차한계가 .205, VIF가 4.874로 기준 수치를 벗어났으나, 크지 않으므로 변수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선형관계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히스토그램, 정규화률도표, 산점도를 확인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직선관계를 이루며, 정규분포를 이루며 회귀표준화 예측값이 어느정도 무작위로 분산되어 있었다.

보편적 가치인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외국의 사회적 약자를 돋는 것'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 '개인의 이념성향: 보수적', '개인의 이념성향: 진보적', '국민의 이념성향: 보수적', '국민의 이념성향: 진보적', '외국방문경험 유무', '집 근처 외국인 거주유무', '한국에 외국인 친구 유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호감',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호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호감'을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50%($R^2=.496$)이며, F값도 유의하므로 적절한 모델로 볼 수 있다. 우선, 다문화 수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외국방문 경험유무'($\beta=.367$),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호감'($\beta=-.429$), '북한이탈주민(새터민)에 대한 호감'($\beta=.938$)으로 밝혀졌다. 즉, 외국방문 경험이 없는 대학생보다, 외국경험이 많은 대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비호감인 대학생과 비교할 때, 호감을 가진 대학생들이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비호감인 대학생과 비교할 때, 호감을 가진 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성별, 이념성향, 집 근처 외국인 거주유무, 한국에 외국인 친구유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호감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의 검증해 본다.



외국경험이 많을수록 대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비호감을 느낄수록 대학생들의 다문화 개방성이 높았다.

첫 번째, 가설인 ‘성

별 · 이념성향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는 3개의 세부가설인 ‘성별에 따라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어려운 외국의 사회적 약자를 돋는다는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자신의 이념성향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따라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어려운 외국의 사회적 약자를 돋는다는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국민의 이념성향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따라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어려운 외국의 사회적 약자를 돋는다’는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로 설정되었다. 세부가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모두 기각되었다.

두 번째 가설인 ‘외국문화의 접촉경험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는 3개의 세부 가설로 이루어져 있다. 즉, ‘외국에 방문한 경험에 따라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어려운 외국의 사회적 약자를 돋는다는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근처에 외국인이 거주하면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어려운 외국의 사회적 약자를 돋는다는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친구나 아는 외국인이 있으면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어려운 외국의 사회적 약자를 돋는다는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이다. 이 중에서 ‘외국에 방문한 경험에 따라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어려운 외국의 사회적 약자를 돋는다는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가설이 채택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세 번째 가설인 ‘이주민에 대한 호감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도 3개의 세부가설로 구성되어 있다. 즉,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호감이 높으면,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어려운 외국의 사회적 약자를 돋는다는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호감이 높으면,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어려운 외국의 사회적 약자를 돋는다는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새터민)에 대한 호감이 높으면,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어려운 외국의 사회적 약자를 돋는다는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이다. 이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호감이 높으면,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어려운 외국의 사회적 약자를 돋는다는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와 ‘북한이탈주민(새터민)에 대한 호감이 높으면,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어려운 외국의 사회적 약자를 돋는다는 의견을 중요하게 생

〈표 7〉 다문화 수용성의 원인 분석

변 인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외국의 사회적 약자를 돋는 것		공선성 통계량	
	B (β)	t	공차한계	VIF
성별 (d)	-.638(-.221)	-1.393	.741	1.350
자신의 이념성향 평가: 보수적 (d)	.462(.148)	.761	.495	2.022
자신의 이념성향 평가: 진보적 (d)	-.046(-.016)	-.085	.555	1.801
국민의 이념성향 평가: 보수적 (d)	.643(.195)	1.096	.593	1.687
국민의 이념성향 평가: 진보적 (d)	.722(.133)	.741	.577	1.734
외국방문 경험유무 (d)	1.123(.367)	2.219*	.684	1.463
집근처 외국인 거주유무 (d)	-.371(-.125)	-.775	.718	1.393
한국에 외국인 친구여부 (d)	-.735(-.240)	-1.578	.806	1.24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호감 (d)	-3.918(-.429)	-1.933 [#]	.379	2.340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호감 (d)	-3.099(-.474)	-1.570	.205	4.874
북한이탈주민(새터민) 호감 (d)	5.082(.938)	3.868**	.317	3.151
회귀 상수		7.374***		
R ² (수정된 R ²)		.496 (.290)		
F값		2.414*		

* 주: (d)는 가변수(dummy variable)임; 성별(기준=여성), 이념성향(기준=중도), 외국방문 경험유무(기준=없음), 집근처 외국인 거주유무(기준=살지않음), 한국에 외국인 친구여부(기준=없음), 외국인근로자·여성결혼이민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호감(기준=비호감). #<.1, * p<.05, ** p<.01, *** p<.001

각할 것이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호감은 다문화 수용성에 부적인 영향을 주므로 가설이 기각되었다. 반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호감은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가설이 채택되었다. 결과적으로 9개의 가설 중 2개의 가설만 채택되고, 나머지 7개는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는 다문화 수용성의 요인은 무엇일까라는 연구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의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문화 수용성을 보편적인 가치로 설정하였다. 이를 기초로 성별·이념성향, 외국문화의 접촉경험, 이주민에 대한 호감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토할 수 있는 9개의 세부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양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였으며, 비획률적 표본추출방법인 의도적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 있는 다중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외국방문 경험유무, 외국인 근로

자에 대한 호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호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별·이념성향, 외국문화의 접촉경험(근처에 외국인 거주유무, 주변에 외국인 이웃이나 친구유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호감은 다문화 수용성에 통계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외국경험이 많을수록 대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비호감을 느낄수록 대학생들의 다문화 개방성이 높았다. 반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호감을 느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성별, 이념성향, 집근처 외국인 거주유무, 한국에 외국인 친구유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호감은 다문화 수용성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한 결과, 기존연구결과와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발견된다. 우선, 첫 번째 가설의 변수로 설정한 성별과 이념성향은 기존연구(황정미 외, 2007; 윤인진·송영호, 2009)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념성향이 중도와 비교할 때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지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두 번째, 가설의 변수 중 외국방문경험은 선행연구(윤인진·송영호, 2009)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에 외국인 친구나 아는 외국인과의 유무는 기존연구(윤인진·송영호, 2009)와 다르게 파악되었다. 세 번째 가설의 변수 중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호감은 기존연구(김혜숙, 2007)과 다르게 보편적인 가치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호감은 선행연구(김혜숙, 2007)와 동일하게 보편적인 가치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다문화 수용성의 대체개념으로 설정한 보편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다문화 개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국방문 기회의 확대, 이주민에 대한 호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사회의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 사회적 거리감, 부정적 인식 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천·강옥모·김혜성·박경숙·박능후·박수경·송미영·안치민·
엄명용·윤혜미·이성기·최경구·최현숙·한동우. 2009. 『사회
복지학의 원리와 실제』. 서울: 학지사.
김용신. 2008. “다문화사회의 시민형성 논리: 문화민주주의 접근”. 『비교

- 민주주의 연구』. 4집 2호. 31-57.
- 김희자. 2008. “외국인에 대한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 『한국사회』. 9집 1호. 255-282.
- 김혜숙. 2002.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사람 및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권. 35-50.
- 김혜숙. 2007.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권 4호. 91-104.
- 김창근. 2009. “다문화 공존과 다문화주의: 다문화 시민성의 모색”. 『윤리연구』. 73호. 21-50.
- 권승. 2009.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 담당 공무원의 인식분석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정책』. 36권 1호. 35-60.
- 심보선. 2007. “온정주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형성과 변화: 한국의 다문화 정책을 위한 시론적 분석”. 『담론201』. 10권 2호. 41-76.
- 양계민. 2009a.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권 2호. 59-79.
- _____. 2009b. “한민족 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0권 4호. 387-421.
- 양애경·이선주·최훈석. 2007.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윤인진·송영호. 2009.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 한국사회학회 2009 전기 사회학대회. 579-591.
- 조화성. 2009. “한국인의 다문화인식 재고찰”. 충남여성정책개발원?현대민족학회 공동학술대회. 공주. 10월.
- 지종화·정명주·차창훈·김도경. 2009. “다문화 정책 이론 확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36권 2호. 471-501.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2008년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현·이동주.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훈석·양애경·이선주. 2008.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 안산과 영암의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권 4호. 39-69.
- Will Kymlicka, 2003, “Multicultural States and Intercultural Citizens”, *Theory and Research in Education*, Vol. 1(2), 147-169.

The Factors Influencing Multicultural Receptivity in Korea

Mi-Young Song

(Research Fellow, Division of Social Welfare,
Chungcheongnam-do,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Key words: Multicultural receptivity, Universalism Value, Good

Will for Immigrant, Multiculturalism

This research goal is to examine the factors of multicultural receptivity for university students. To reach this goal I defined multicultural receptivity as the universalism value and examined how much universalism value influenced by gender, inclination of ideology, cultural exchanges experiences between korea and the other country, good will for immigrant. As the universalism value in the established study was proved openhearted attitudes for minority groups in Korea society, it was defined as the substitution concept for multicultural receptivity. The concrete question for measuring it is the opinion to help beneficiary of social welfare who are poor comparing with that of us. The research method was approached to quantitative method and used intentional judgement sampling among 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s. The analysis method to get the research result was operated on th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s result for multicultural receptivity influenced by cultural exchanges experiences between korea and the other country or not, good will for foreign laborers, good will for North Korean refugee was appeared as statistic significance on it. On the other hand, gender, inclination of ideology, living foreign at next door or not, having foreign friend or not, good will for migrant wives were not mainly statistically influenced on the multicultural receptivity.